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영화 '철의 여인' 중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

철의 여인을 녹인 아리아

영국의 전 수상 마가렛 대처의 삶을 다룬 영화 '철의 여인'은 메릴 스트립에 의한 메릴 스트립을 위한 메릴 스트립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다. 대처 수상이 밟아온 삶의 족적을 아마 메릴 스트립만큼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는 연기자가 누가 있을까? 그녀의 완벽에 가까운 연기는 2012년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이라는 타이틀이 대변한다.

영화는 대처 수상의 업적이나 정치적 행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간 대처의 삶 자체에 시선을 두고 진행된다. 이제는 치매에 걸려 보통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는 대처의 모습부터 시작하는 영화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식료품집 소녀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큰 뜻을 품고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하지만 낙선한다. 낙심한 그녀를 눈여겨본 사업가 대니스 대처는 후원자가 되기로 약속하고 그녀와 사랑을 키우게 된다. 젊은 날의 대처 수상이 남편을 만나 들른 오페라 극장, 극장에서는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가 공연되고, 그녀와 남편은 이 오페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을 약속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운다.

이 공연장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바로 저 유명한 아리아 '정결한 여신'(Casta Diva)이다. 수없이 많은 오페라 아리아들이 사랑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중적인 아리아로,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율이 청자를 감동시키는 노래다.

벨리니의 '노르마'는 비극적 결말을 가진 오페라다. '정결한 여신'은 제1막에서 주인공 노르마가 부르는 아리아로, 비밀리에 사랑해온 로마총독 폴리오네가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져버린 것을 비탄해하면서, 그가 돌아올 것과 갈리아 지방의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다. 이 노래에서 '정결한 여신'은 곧 '달'을 뜻한다.

노르마 최고의 가수는 마리아 칼라스로부터 시작되었다. 기교와 가창력에서 마리아 칼라스보다 나은 가수들은 많았지만, 호소력있는 연기와 캐릭터 자체에 자신의 삶을 강하게 투영시켰던 칼라스를 넘볼 수 있는 가수는 당시에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들은 불멸의 멜로디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의 노래와 연기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안젤라 게오르규와 함께 순식간에 오페라계 양대 디바로 떠오른 네트렙코는 마리아 칼라스를 잇는 진정한 카스타 디바를 노래한다. 섬세한 기교와 압도적인 카리스마, 육감적인 외모는 마리아 칼라스의 연기에 화려한 기교를 더했다는 평가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한 공연 영상 등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지를 금세 알 수 있다.

영화속 치매에 걸려 자신의 남편을 추억하는 대처의 눈빛은 '정결한 여신'을 노래하는 극중 노르마와 다르지 않다. 노르마의 애타던 심정이 곧 영국을 쥐고 흔들었던 철의 여인 대처의 마음 아니었을까? 카스타 디바의 가사는 이런 대처의 마음을 더욱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아! 아름다운 사람아 내게 돌아오라/당신의 평온한 빛과 함께/살고 싶어라 당신의 품안에서/조국이여 그리고 하늘이여/아, 돌아오라 다시금 예전의 당신으로/그때에 나의 마음을 네게 주었었지/아, 돌아오라 내게로..."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찬바람이 불면 무대는 더 뜨거워진다

광주시립무용단 '호두까기 인형'

시립예술단체들 하반기 일정 확정… 시향 31일 '신세계' 첫무대

시립무용단, 대구서 '호두까기 인형' 공연… 지역간 교류도 활발

금노상

조진주

여름을 맞아 한달 동안 휴지기에 들어갔던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하반기 공연을 시작한다. 각 단체들은 공연 일정을 확정하고 관객들을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

▲베토벤·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교향악단은 하반기 공연 일정과 레퍼토리를 확정했다. 31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신세계'가 첫 무대다. 크리스티안 루드비히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씨가 코른골드의 '바이올린협주곡 작품 35'를 협연한다.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갖기도 한 조씨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콩쿠르 1위, 윤이상 국제콩쿠르 2위에 입상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9월21일에는 광주시향을 이끌었던 금노상(대전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씨가 다시 광주 팬들을 만난다.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이 주 레퍼토리며 윤대우(피아노·목원대 교수), 김선희(바이올린·충남대 교수), 한혜선(첼로·목원대 교수)씨가 베토벤의 '3중협주곡 작품 56'을 협연한다.

10월 18일에는 '스페인의 불꽃'을 주제로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1번', 네이 로사우로의 '마림바 협주곡 1번', 로드리고의 '기타협주곡'을 들려준다. 협연자는 기타리스트 김우탁, 타악 연주자 김은혜다.

10월25일 열리는 정율성 음악제에도 참가한다. 부산시향을 이끌고 있는 중국인 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봉을 잡고 바이올리니스트 강주미씨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을 연주한다.

이어 '거장 라흐마니노프'(11월 10일)에서는 '심포닉 댄스'에 이어 '피아노협주곡' 3번을 알렉세이 보로딘과 협연하며, '독일 고전'(11월30일)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3번'(피아니스트 유영욱 연세대 교수)와 브람스 교향곡 2번을 연주한다.

시립무용단은 10월 열리는 광주세계아리랑 축제에 출연하며 11월께 모던 창작 발레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또 12월21~22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크리스티안 루드비히의 지휘로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무대에 올린다.

국악관현악단은 오는 9월 19일 소리꾼 주소연씨 등이 출연하는 '빛이 있는 얼굴들' 공연을 갖는다. 이날 무대에는 특히 가수 한영애가 출연, '조율', '누구 없소' 등을 선사한다. 또 10월에는 지역의 역량있는 대학생들의 협연무대가 마련되며 11월말에는 기획공연을 준비중이다.

올해 창단 공연 '세익스피어 in 광주'를 선보였던 시립극단은 10월10일~15일까지 김종진씨의 연출로 마당극 '별주부전'을 무대에 올린다.

국극단은 11월 '명인명창전'을 준비중이다. 이태백, 진유림 씨 등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악인들을 초청, 판소리와 민요, 기악과 무용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구상하고 있다.

합창단도 오는 9월 6일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잇는 교과서 음악회'를 통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며 소년소녀합창단은 광주세계아리랑축전에 참가하고 12월말 송년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대구시향, 대구오페라단과의 만남

하반기에는 지역간 교류도 활발하다.

지난 7월 여수시의 초청으로 예울마루에서 창작 발레 '이순신'을 공연한 데 이어 지난 25~26일 울산시립교향악단과 고전발레 '지젤'을 무대에 올렸던 무용단은 대구에서 공연을 갖는다.

대구오페라하우스, 광주문예회관이 국토해양부가 공모한 '내륙권 개발 공동사업'에 서 선정되면서 두 도시 시립예술단체들이 협업에 나서는 프로젝트다.

무용단은 12월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한다. 또 교향악단은 오는 11월 24일 대구시오페라단과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무대에 올린다.

또 소년소녀합창단 오는 11월 서울 마포아트센터 진행하는 기획공연에 초청돼 올해 선보였던 프로그램 가운데 센터 측과 조율을 통해 작품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학적 시각으로 본 '음악'

EBS 다큐프라임, 27~29일 방영

EBS '다큐프라임'은 27~29일 밤 9시50분 3부작 '음악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가'를 방송한다.

다큐멘터리는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함께 리듬, 멜로디 등 음악을 이루는 요소를 인문학적 시각을 접목해 들여다봤다.

1부 '시간의 주인'에서는 '음악가를 가두는 틀' 리듬을 조명한다. 음악가들은 2박·3박·4박 등 지루한 정박에서 벗어나고자 싱코페이션·루바토·랙타임 등 다채로운 리듬을 만들어냈다.

2부 '집으로 가는 길'은 리듬과 함께 음악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멜로디를 다뤘다. 제작진은 선율을 한층 맛깔 나게 꾸미는 하모니에 주목,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음악에 비유했다.

3부 '히든 트랙'에서는 유명 음악인으로부터 다큐멘터리의 제목이기도 한 '음악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로잡는가'에 대한 대답을 듣는다.

/연합뉴스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방안'

광주여성재단, 28일 워크숍 개최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은 28일 오후 2시 광주여성재단 8층 강의실에서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재단 연구원인 고보혜·박주희씨가 '광주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현황'과 '광주시 여성장애인 및 실무자 욕구 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정병문(광주시 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강경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 상임대표), 권순국(광주시 여성장애인복지관 지원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의 062-670-05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